

전북관광브랜드공연 뮤지컬 '홍도1589' 29일 개막

# 정여립의 삶 · 손녀 홍도의 사랑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서... 13일 티켓링크·네이버티켓 오픈  
생활속 거리두기 따라 관람 시 좌석 2m 띄어 앉기 등 준수사항 마련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연기했던 뮤지컬 '홍도1589'를 오는 29일 오후 3시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홍도1589'는 제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홍도'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작품으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조선 시대 혁명가 '정여립'의 삶과, 불사의 몸으로 자신의 첫사랑을 400년 동안 기다려 온 정여립의 손녀 '홍도'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뮤지컬 '홍도1589'는 2018년부터 시작해 3년째 선보이는 작품으로, 초연부터 함께 호흡했던 권호성 연출가를 주축으로 최병규 안무가, 진남수 드라마트부기, 양승환 작곡가, 이슬아 음악감독 등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재단은 코로나19 위기 속 철저한 방역 대응을 통해 배우 선발과 연습을 진행했으며,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공연장 입장 시 관람객 증상 여부 확인,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입장권 온라인 사전예매 권장, ▲관람 시 좌석 2m(최소 1m) 띄어 앉기 등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홍승광 상설공연추진단장은 "'홍도1589'는 관객을 맞이하기 위해 공연 개막 준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집체한 사회 분위기 속에 '홍도1589'가 도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5월 29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총 110회 공연(화~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토 오후 3시)으로 진행되며, 5월 13일 오후 1시부터 '티켓링크'와 '네이버티켓'에서 티켓(1만 원)을 오픈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show/hongdo)나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8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뮤지컬 '홍도 1589' 포스터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연기했던 뮤지컬 '홍도1589'를 오는 29일 오후 3시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에서 개막한 가운데 출연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할 · 가치 확장

###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파견사업-예술로' 사업 추진

15일까지 리더예술인 · 29일까지 참여예술인들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장을 위해 전북도 예술인파견사업-예술로(路)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재단은 '전라북도 예술인파견사업-예술로(路)'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을 모집한다.  
리더예술인과 참여기업·기관(마을)은 5월 15일, 참여예술인은 5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격은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거

주지가 전라북도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거나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업·기관(마을)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라북도 예술인파견사업-예술로(路)'는 예술인들이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국비로 활동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공동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30명의 예술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활동

예술가에게는 최대 6개월간 120~14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본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지역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술(인)과 사회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창의적 사회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정은 신청 예술인의 사업 이해도, 문제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선발된 예술인은 기업·기관(마을)에 매칭돼 예술적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과정에 참여하고, 예술협업 활동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문화사업팀(063-230-7440~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 완창무대 완창자 공모

판소리 5바탕 중 본인이 부르고 싶은 소리로 응모 가능... 25일부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대한민국 판놀음 일원으로 진행될 판소리 완창무대 '소리판'의 완창자를 공모한다.  
응모는 판소리 5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중 본인이 부르고 싶은 소리로 응모할 수 있고 소리꾼은 누구나 가능하다.  
최종 선정자는 10월 대한민국 판놀음 기간 중 판소리완창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6백만원의 출연료(소리꾼 4백만원, 고수 2백만원)와 무대 제작시설, 공연홍보, 공연영상파일 등을

지원한다.  
접수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오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nice12@korea.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은 '민속국악원에서는 판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완창 무대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미술관, '작은 나 만들기' 29일 진행

전주미술관은 5월 마지막 주 주말인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주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여가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주미술관은 지난날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달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자화상 인형-mini-me 작은 나 만들기'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 인형 만들기 체험이 이뤄진다. /뉴시스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 고인돌 야행  
청동기시대 상시체험 등

세계유산 도시 고창에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0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에 깃들여 있는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지역공동체 자원, 문화 및 예술 활동과 결합해 공연, 문화 활동,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이다.  
이에 고창군은 '세계유산과 운도장이 함께하는 고인돌 야행'과 '고인돌유적 상시체험 운영', '죽림 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상시운영' 3건이 선정됐다.  
군은 오는 29일 '세계유산과 운도장이 함께하는 고인돌 야행'을 시작으로 29일 '고인돌유적 상시체험'을 운영한다.  
특히 '세계유산과 운도장이 함께하는 고인돌 야행'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함께하는 융복합적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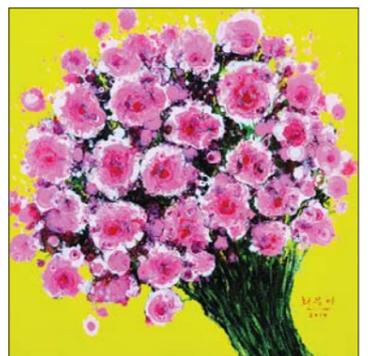


인돌유적 야경, 별자리 관찰, 버스킹 등이 진행된다.  
또 '고인돌유적 상시체험'은 고창 고인돌유적과 관련된 다양한 청동기시대 생활 체험 프로그램으로 총 61회 운영 된다.  
유창형 고인돌유적 팀장은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시월인 고인돌유적에서 이번 프로그램 추진으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선사유적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 '겸허함의 향기로'... 최분아 개인전

gallery숨, 20일까지

gallery숨에서는 '겸허함의 향기로'라는 전시명으로 오는 20일까지 전시공간지원기회 공감-공유 2020 최분아 개인전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gallery숨은 지난 3,4월 동안 휴관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gallery숨에서는 최분아 작가의 개인전으로 전시를 시작했다.  
gallery숨의 전시기획 '공감-공유'는 전시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을 통한 공감과 공유를 원하는 작가의 신청을 받고, 소정의 심의 후 선정된 작가의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개성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하는 gallery숨의 의지다.  
관람시간은 평일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천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이 내 시야에 춤추듯 들어와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를 통해 작가는 우연히 지나면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꽃들의 향기, 꽃가게에 가지런히 진열된 다양한 꽃들,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에 수놓인 꽃의 문양들을 보고 가슴속 풍요로운 언어의 느낌을 현대적 감각으로 화폭에 담는다.  
이러한 꽃이라는 소재를 전통적인 표현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적 감각으로 즉, 화려한 장식이나 섬세한 표현을 생략하고 단순화된 구성과 색상으로 사물을 표출하고 표현하려 한다. /장은성 기자



겸허한 마음으로 그려낸 서정적 화화의 이미지 속에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행복함과 따스한 향기를 전하고, 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겸허한 마음의 향기를 표현 해 본다.  
한편 최분아 작가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동대학원 미술학과(서양화전공) 졸업했다. 소장품으로는 '보라꽃', '겸허함의 향기로', '겸허함의 향기로' 등이 있다. 또 김작가는 제2회 전주시 예술상(미술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작가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그룹전 및 기획 초대전 40여회 출품했다. 현재 여류구술작가회, 전북여성미술인협회, (사)한국전일미술가협회, (사)환경미술협회,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라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롯데마트 전주점 문화센터(유화) 강사로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 완판본 한글서체 차이가 한 권에

완판본문화관, '홍길동전' 영인본 발간

완판본문화관은 '홍길동전' 완판 36장본의 영인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2일 완판본문화관에 따르면 '열여춘향수절가' 영인본을 시작으로 한글고전소설 영인본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완판본문화관 소장 홍길동전은 총 36장으로 19~36장까지는 간행 초기의 형태이며, 1~18장까지는 새롭게 보각(補刻)됐다. 보각이란 목판이 오래돼 글자가 닳거나, 훼손, 유실 등으로 인해 인쇄할 수 없을 때 새롭게 판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옛 책을 간행할 때에는 목판 보관·보존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보각이 많이 이뤄졌다.  
방각본 한글고전소설은 지역별로 서체의 특성이 달라지는데 서울에서 간행된 경판본은 흘림체로 전주에서 간행된 완판본은 반듯반듯한 해서체로 나뉜다.  
보각 목판인 1~18장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완판본의 전형인 해서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며, 19~36장은 반듯한 초서와 해서체 중간 정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16년 다가서포에서 서계서포의 목판에 1~18장을 보각해 홍길동전을 간행했다. /장은성 기자



'홍길동전' 영인본 표지

안준영 관장은 "완판본 홍길동전은 전주 완판본체의 변천 과정 등을 담고 있고, 판각의 기법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서적이다"며 앞으로 서체 비교 관련 전시 계획도 밝혔다. /장은성 기자